

현시기 영화문학창작에서 조선영화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위한 몇가지 문제

최영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이 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1권 313~314페이지)

지난 시기 우리의 영화예술부문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비롯하여 조선영화의 얼굴, 주체시대의 명작으로 불리울만 한 성과작들을 수많은 창작창조함으로써 조선영화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세계각국의 수많은 관중들에게 조선영화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최근 몇해사이에만도 《소원》,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행복의 수레바퀴》, 《우리 집 이야기》, 《졸업증》을 비롯한 예술영화들이 국제영화축전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여러 나라와 지역의 각계층 관중들로부터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예술영화들이 이처럼 외국의 관중들속에서 찬양을 받고있는것은 남의것을 본 따거나 남의 비위를 맞추기 없이 사상주제적내용으로부터 예술적형상에 이르기까지 영화창조의 모든 면에서 조선의 낯과 기상, 조선의 향취를 그대로 체현하고있기때문이다.

자기 인민의 특징적인 성격과 세태풍속, 자기 나라 사회제도에서 기본으로 되는 인간관계, 자기 민족의 어제와 오늘이 비낀 언어생활 등을 옳게 반영할 때에만 우리의 영화가 외국작품들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얼굴을 가질수 있으며 인민의 문학으로서의 참다운 가치도 가질수 있는것이다.

그러자면 예술영화의 사상예술적기초로 되는 영화문학창작에서부터 조선영화의 얼굴, 조선영화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야 한다.

현시기 영화문학창작에서 조선영화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인물성격형상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우리 민족고유의 성격상특성을 옳게 그리는것이다.

예술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신세계는 해당 시대, 해당 민족의 성원들이 지니고있는 사상관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료리도덕관의 축도로 되며 그들의 모습에는 결국 시대와 민족의 모습이 비끼기마련이다. 그것은 바로 예술영화들이 현실생활에서와 다름없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인간을 그대로 그려보이기때문이다.

피부색과 언어, 신앙과 풍습, 사회제도와 사상의식수준이 서로 각이한 세계각국의 관중들은 예술영화를 보면서 자기들이 가보지 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한번도 만나본적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민족성을 지니고 사회발전의 각이한 단계를 거쳐왔으며 현시대의 풍파속을 헤쳐가고있는가에 대하여 적지 않게 파악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화문학들에서는 시대의 전형, 민족의 전형들을 진실하게 창조하여

조선영화의 특성을 뚜렷이 살리고 세상사람들에게 조선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조선의 성격, 조선사람의 성격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인식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선 인물성격형상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옹계 살려내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는 단결의 정신,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불변의 신념과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우리 국가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 혁명적락관주의를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사상정신적풍모의 원천으로, 오늘날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성의 핵으로 되는것은 다름아닌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우리의 영화문학들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을 형상함에 있어서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수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를 진실하고 두드러지게 보여주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려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도, 자기 힘을 믿고 만난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낙천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과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참다운 동지적사랑과 의리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 시기 우리의 영화예술부문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가장 투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우리 당력사에 실재했던 원형들에 기초하여 《한장의 사진》, 《혁명가》, 《만병초》, 《전환의 해》, 《이 세상 끝까지》, 《옛 경위대원》, 《유산》, 《백옥》과 같은 성과작들을 수많은 내놓았다.

영화문학작가들은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거창한 변혁의 시대, 위대한 만리마 시대에 사는 조선사람들의 성격적특질을 새롭고 특색있게 그려내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떨쳐일어나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한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과 첨단돌파전의 앞장에 선 기수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 러명거리건설에서 신화적인 기적을 창조한 건설자들을 비롯하여 영화의 주인공으로 될수 있는 시대의 전형들은 이 땅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중요한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여 인물들의 성격적대를 튼튼히 세우면서도 매 인물에게 고유한 성격적미를 잘 살려주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인물의 성격적핵으로 틀어쥐고 전형화와 함께 개성화를 충분히 실현할 때에만 새맛이 나는 영화문학을 써낼수 있다.

우리의 영화문학들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을 형상함에 있어서 최근시기 우리 인민들속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자력자강의 정신을 잘 그리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민족적자존심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힘을 키우며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게 하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며 그것은 자강력에 의해 굳건히 담보된다.

지난 시기에도 《그날의 맹세》, 《성강의 파도》, 《보증》을 비롯하여 남에게 구걸하거나 의존함이 없이 자체의 힘과 지혜로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자강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영화문학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영화문학작가들은 우리 식 지하전동차의 개발자들과 탄소하나화학공업의 개척자들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자력자강의 선구자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적극 내세워야 한다.

생산실무적문제에 빠져 인물들의 성격형상과 호상관계설정에서 앞선 작품들을 답습하고 모방할것이 아니라 변천된 오늘의 시대상이 비끼도록 새맛을 돋구어야 한다.

최후승리에 대한 우리 인민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결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에 의하여 믿음직하게 담보되고있는 절대불변의 진리임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사람들이 조선의 영화만 보아도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가 사실상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으며 력사는 허장성세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가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전진하는 조선인민에게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게 되리라는 철리를 깊은 감명속에 받아안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영화문학들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을 형상함에 있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혁명동지들을 위해 자신을 바쳐가는 미풍선구자들의 고결한 정신도덕적품모를 더 훌륭히 보여주는데도 많은 품을 들여야 한다.

개인의주의적 인생관과 황금만능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싸늘한 랭기로 가슴을 얼구며 사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선에서 꽃피어나는 인간사랑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리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때문에 우리는 출판보도물들에서뿐만아니라 예술영화의 화면을 통해서도 조선사람들이 어떤 심장을 지닌 사람들이며 따뜻한 정이 넘치고 따뜻한 봄빛이 흐르는 조선의 사회주의가 어떤 사회인가를 잘 알려주어야 한다.

영화문학작가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이 키워낸 참된 인간들에 대한 례찬이 앞으로도 현실물영화문학창작의 주제령역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분야라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은정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훌륭히 꾸려진 애육원과 육아원에서 자라는 원아들의 생활과 아무런 구김살없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장애자들의 생활을 비롯하여 새로운 분야의 소재들도 열정적으로 탐구하면서 특이하고 인상적인 생활세부들로 진실한 성격형상을 안받침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고상한 미덕의 화원이 더 활짝 꽃피어나도록 적극 추동하는 동시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원수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인권》모략소동의 부당성도 온 세상에 날날이 발가놓도록 하여야 한다.

인물성격형상에서는 또한 장구한 력사적기간에 걸쳐 형성된 우리 민족고유의 성격상 특성을 옹계 살려내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동정심이 많으며 례절이 밝고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있다. 우리 인민은 인류력사발전의 려명기부터 동방의 일각에서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였으며 이러한 민족성은 오늘도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력사물영화들과 민족고전각색영화들의 창작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찬란한 력사와 더불어

어 빛을 뿌리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고유의 성격적특성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온달전》, 《하랑과 진장군》, 《달매와 범다리》, 《임진왜란》, 《설죽화》, 《춘향전》, 《림격정》, 《홍길동》, 《홍부전》, 《보심록》을 비롯한 조선영화들에 반영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애국명장들과 평범한 인민들의 슬기와 용맹, 사랑과 의리를 지켜 목숨도 기꺼이 내대면서 불의에 항거하는 송죽같은 절개, 고생속에서도 서로 돕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씨는 오늘날도 외국의 관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실례로 주체97(2008)년 12월 이탈리아의 중부 도시 피렌체에서 진행된 조선영화상영회과정에는 우리 나라 영화 《춘향전》도 상영되었는데 이 영화를 본 소감에 대해 이탈리아 사람들은 《조선의 력사와 풍속, 전통을 알게 한 매력있는 영화》, 《민족성이 풍부한 영화》, 《예술성과 개성이 뚜렷한 영화》 등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만화영화부문에서 《고주몽》과 《소년장수》의 연속편들을 훌륭히 창작하고있는데 발맞추어 예술영화부문에서도 을지문덕과 연개소문, 김종서와 최영, 홍경래와 전봉준, 최무선과 장영실을 비롯한 력사인물들의 생활과 력사적사건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 《박씨부인전》이나 《전우치전》과 같이 특색있는 민족고전들을 각색한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창작하여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나간 력사를 취급하는 작품들이 인물들의 성격형상과 인물관계설정에서 독특한 맛을 살릴수 있고 활극과 애정극 등 영화류형의 측면에서뿐아니라 촬영과 편집, 배우연기와 음악 등 많은 면에서 우리 영화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것이라는데 대해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들을 비롯하여 주체시대 인간들의 생활을 반영한 영화문학들에서도 인물들의 성격형상은 철저히 민족적바탕에 기초하여야 한다. 영화문학들에서 우리 민족고유의 성격상특성을 옹계 살려내는것은 결코 흘러간 력사를 담은 영화문학들의 창작에서만 의의를 가지는 문제가 아니다.

녀성들의 형상을 실례로 놓고볼 때 예로부터 조선녀성들의 성격적특질은 《외유내강》이라는 말로 일러왔으며 근면하고 강의하며 착하고 레절바른 조선녀성들의 고유한 미덕은 우리 시대에 와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혁명가적품모로 더 높이 발양되고있다.

이러한 우리 녀성들의 민족적특성을 무시하고 외국녀성인지 조선녀성인지 모를 인물들을 등장시키는것으로써 《개성적인 성격》을 만들어내려 한다거나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녀성들을 《규방처녀》나 《현모량처》와 같은 고정된 틀거리에 맞추어 그리는것 등은 다같이 우리의 영화문학들에서 녀성들의 형상을 그의 력사적 및 민족적바탕에 의거하면서 동시에 오늘의 현대적미감에도 부합되도록 원숙하고 세련된 형상으로 꽃피우는데서 옹당 경계하여야 할 경향으로 된다.

조선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형상에 조선민족의 성격상특성으로부터 오는 민족적인 정서가 옹계 반영되여야 영화문학에 비쳐진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우리 인민들에게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세상사람들에게 조선사람들의 민족적특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훌륭한 형상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모든 작가들이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현시기 영화문학창작에서 조선영화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인물관계를 철저히 집단주의에 기초하며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에 맞게 설정하는것이다.

현실생활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전진하고있으며 인간성격 역시 구체적인 인간관계속에서 표현되고 발전해나가게 된다. 영화문학에서의 인물관계는 본질에 있어서 현실에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예술적반영이며 인물관계를 어떻게 맺어주는가 하는것은 작품에서 갈등극, 오해극, 상봉극, 내적심리극과 같은 유형을 규정하는것과 함께 해당 민족의 전형적생활을 보여주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영화문학들에서 인물관계는 우선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표현으로 하는 집단주의는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사회정치생활을 잘하며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데서,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동지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데서도 표현된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이 철저히 옹호되는 기초우에서 매 개인의 리익도 존중되고 사회적해택도 돌려지고있으며 온 사회에 단결과 협력의 관계가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동지적인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비상히 양양된 창조적열의에 의하여 사회발전이 힘있게 추동되고있다.

우리의 영화문학들에서는 사실주의적창작방법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물들사이의 관계설정에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그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정확히 그려내야 한다.

영화문학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의 창작과정이 이에 대해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초기에 창작가들은 주인공과 신기록보유자인 선배교예배우사이의 관계를 경쟁과 오해, 불신과 대립의 관계로 설정하고 사건발전과정에 그들이 점차 서로를 리해하고 협조하면서 공중교예에서 네바퀴돌아잡기를 성공하게 되는 심각한 정극적양상의 줄거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다가 이러한 설정이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의 본태에도 맞지 않고 더우기 이 작품의 종자와 그로부터 규정되는 형상의 생리에도 맞지 않는다는것을 깨닫고 수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주인공의 주위에는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 돌격대의 중대장과 대원들, 강철전사들, 교예단의 일군들과 배우들을 비롯하여 그의 꿈과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도와주는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이 설정되게 되었고 구성도 주인공이 조직과 집단, 동지들에게 이끌려 성장하는 이야기로 재조직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 상쾌하고 랑만적인 작품의 양상도 보장되고 작품을 통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체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소기의 목적도 성과적으로 달성되었으며 마침내 여러 나라 관중들의 호평을 받는 영화로 완성될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볼 때 우리의 영화문학들에서 수령의 은혜로운 사랑과 믿음속에 누구나 행복에 넘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끼도록 인물관계를 설정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영화문학작품에서 부정을 설정하고 형상하는 경우에도 동지적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부정을 타매하고 고립시키는것이 아니라 동지들의 사랑과 집단의 방조속에 그의 결함이 극복되고 바른 길에 들어서는것으로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영화문학들에서 인물관계는 또한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민족의 고유한 성격, 정서와 감정이 반영된 미풍량속은 민족이 대를 이어 전하면서 간직하고있는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풍속, 아름다운 풍속이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워왔으며 우리 민족은 대대로 고유한 미풍량속을 자랑하여왔다. 우리의 영화문학들은 인민들로 하여금 민족의 훌륭한 전통과 유산, 미풍량속을 귀중히 여기고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영화문학들에서는 가정생활을 그려도 사회생활을 그려도 모든 인간관계를 철저히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에 맞게 형상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에게는 옷차림이나 인사례절은 물론 식사례절과 상차림 같은데서도 고유한 민족적특성이 있다. 물론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가 날로 높아가는데 따라 우리 민족의 옷차림과 식생활 등에서도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생활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들에서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과 맞지 않으며 사회주의대가정의 도덕기강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은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영화문학들에서는 앞으로도 인물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어울리지도 않을뿐아니라 우리 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할수 있는 이색적인 설정들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을 세상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혁명적도덕관을 세워주는 힘있는 수단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영화문학창작에서 조선영화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언어형상에서 고유어를 적극 살려쓰며 우리 나라 성구와 속담을 비롯하여 민족적색채가 짙은 어휘표현들을 널리 리용하는것이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 영화문학 역시 언어를 형상수단으로 하여 창작되며 작품의 주제사상도 대사와 독백, 설화를 비롯한 언어를 기본으로 하여 관중들에게 더 잘 전달되게 된다. 그러므로 영화문학에서 언어형상을 잘하는것은 조선영화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영화문학의 언어형상에서는 우선 고유어를 적극 살려써야 한다.

문학작품의 민족성은 민족어와 떼어 수 없이 련결되어있다. 영화문학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인물들은 우리 민족의 성원들이며 그들사이의 교제도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 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언어형상에서 오랜 력사적과정에 우리 인민들의 몸에 폭 배인 고유어를 적극 살려써야 작품의 인민성과 통속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외국의 관중들에게도 우리 인민의 민족성이 더 잘 리해되게 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불필요한 외래어나 한자말들을 망탕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며 특히 대사집필에서 등장인물들의 격에도 맞지 않게 한문으로 된 4자성구를 쓸데없이 끼워넣는 현상을 경계하여야 한다.

작품에 그려진 인물의 생활경력이나 환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자기의 유식이나 뽐내고 멋이나 부리려고 적재적소도 아닌 곳에 끼워넣는 4자성구들은 관중들에게 공감을 줄수 없을뿐아니라 우리 영화의 민족적성격을 살리는데도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영화문학작품창작에서는 남조선이나 해외에 사는 동포들, 외국인들의 대사나 전문과학기술용어들을 제외하고는 될수록 우리 인민들이 늘 쓰고있고 알기도 쉬운 고유어를 바탕으로 대사나 설화들을 엮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화면에 형상되지 않는 바탕글까지도 고유어를 기본으로 서술하도록 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영화문학의 언어형상에서는 또한 우리 나라 성구와 속담을 비롯하여 민족적색채가 짙은 어휘표현들도 널리 리용하여야 한다.

성구는 일반적으로 해당 나라 인민들이 언어생활에서 즐겨쓰는 고유한 표현형식을 반영한것으로서 민족적특성을 매우 뚜렷이 나타내며 형상성과 표현성을 풍부히 가지고있는 것으로 하여 민족어의 어휘구성과 표현력을 풍부히 하고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다양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우리 말에는 세계의 그 어느 나라 언어보다도 성구가 많고 발전되어있다.

속담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생활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교훈을 간결하고도 형상적인 언어형식으로 표현한 속담은 인민들의 생활경험과 교훈, 사상미학적지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다. 민족적인 풍속과 사고방식, 언어적관습을 담고있는 속담은 계급투쟁의 진리로부터 일상생활의 단순한 리치에 이르기까지 생활반영의 폭이 대단히 넓다.

성구나 속담은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풍부히 하고 인식교양적기능을 수행할뿐아니라 문학예술작품의 표현성을 높여주는데도 크게 이바지한다.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에 창작된 많은 성과작들에서는 성구들과 속담들을 성격창조와 주제해명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작품의 민족적정서와 향취도 한껏 돋구는 좋은 경험을 보여주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 6, 7부만 보아도 《서컨에 무지개 서면 개구장에 소 매지 말랬다》, 《초년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 《불는 불에 키질》, 《굴러온 돌이 배긴 돌을 뺀다》, 《콩밭에 서술 치겠다》, 《벼룩도 낮짜이 있다》, 《개밥의 도토리》, 《등치고 간 빼먹는다》, 《손톱 굵는줄 알면서도 염통 굵는줄은 모른다》, 《박달나무도 쯤이 쓴다》,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를 비롯하여 성구, 속담을 재치있게 리용한 대사들을 많이 찾아볼수 있다.

영화문학작가들은 이러한 성과작들의 경험을 적극 본받아 불필요하거나 적중치 않은 성구, 속담들의 람발은 철저히 경계하면서 대사형상에서 우리 나라 속담들과 성구들을 능숙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영화문학들은 언어형상에서 고유어를 살려쓰고 성구, 속담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그자체가 외국인들을 위한 조선말회화교재로 능히 쓰일수 있을 정도로 조선영화의 고유한 맛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

이밖에 음악과 무용의 배합, 피사체의 설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도 영화문학작가들은 조선영화의 특색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아무리 종자가 좋고 사회적으로 의의가 있는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라고 하여도 조선영화의 얼굴이 살아나게 형상되지 못한것이라면 대담하게 버리고 우리 혁명의 리익,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우리 식대로 창조하는 길에 조선영화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모든 영화문학작가들은 조선의 예술영화들에서는 마땅히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

계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인간관계, 우리 민족의 고상하고 문명한 언어생활에서 우러나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향취가 풍겨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주체조선의 참모습이 비낀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영화문학, 조선영화, 인물성격형상